

02

광장으로 나온 전문가들

-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이끈
재능기부 세무사들의 이야기 -

프롤로그: 상담료 0원의 무게

강남구에는 수많은 세무사 사무실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그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비싼 상담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세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이나,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에게 세무 전문가는 만나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강남구는 이러한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누기로 약속한 재능기부 세무사들입니다.

제1막: 넥타이를 풀고 현장으로

6월의 도곡초여름 피크닉축제, 9월의 야식행복 페스티벌, 그리고 10월의 K-뷰티 스트릿 페스타까지. 구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이 상담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 대신, 땀이 흐르는 야외 천막 아래에 세무사들이 앉았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축제 현장의 소음과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이번에 시골집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장사가 안돼서 부가세를 못 냈는데 분납이 될까요?” 질문은 실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세무사들은 법전을 펼치는 대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상인에게는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메모지에 꼼꼼히 적어 건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세무사는 상담을 마친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건넨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수입료를 받고 일하지만, 여기서 듣는 ‘고맙다’는 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끄는 힘입니다.”